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이기원, 이욱재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chin200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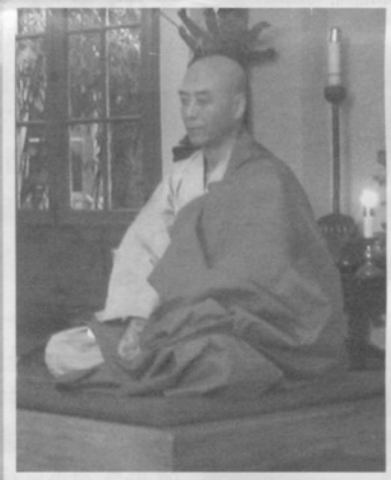
백신에게 듣는다<열여덟번째>

현웅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생활속의 선 수행
- 일시 : 불기 2548(2004)년 9월 11일(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현웅스님 약력

- ▶ 송광사 초대방장이신 구산선사에게 지도
- ▶ 인천용화사 전강선사 밑에서 선 수행
- ▶ 1984년부터 유럽에 선불교 포교
- ▶ 1986년 워싱턴주 시애틀에 돈오선원을 창립
- ▶ 1990년 서부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촌에 육조사 선원을 개원
- ▶ 2004년 육조사 분원을 서울 가회동에 개원



9월 사찰환경 답사 “산사음악회”

운주사 ▶ 보성차밭 ▶ 쌍봉사

▶ 보성대원사(산사음악회) ▶ 완주 송광사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9월 18일(토) ~ 19일(일)
- 출발지 : 18일(토) 오전 7시 30분 경기불교문화원 앞
- 동참금 : 6만원 (숙식/여행자보험/간식/사찰입장료 포함)

9월 초

일본문화 답사기 (Ⅲ)

-일본 불교-



金堂 陳哲熙 / 京畿佛教文化院長



일 본 방문 삼일째 우리 일행은 공식행사를 마치고, 일본문화탐방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일본불교와 사찰은 이번 방문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정이라 아침부터 서둘러 나서야했다. 우리들이 다닌 문화탐방 일정이 일본에서는 수학 여행철이라 어느 곳을 가도 초·중·고 학생들로 넘쳐났기 때문이다.

일본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일본서기」에 의하면 6세기 경 백제의 도장(道藏)이 불상과 불경을 야마토 조정에 선물한 538년경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종교인 '불교'는 처음에는 보수적인 집단이 반대하였지만 587년경 왕위계승전쟁에서 승리한 소가가문의 성덕태자(成德太子)가 불교를 국가통치 이념으로 채택하였을때 부터 번창하기 시작했다.

그 후 나라시대, 헤이안 시대, 후지하라 시대, 가마쿠라시대를 거쳐 지금에는 엄격한 종파불교로 발전하였다.

최징을 조사하는 천태종, 공해의 진언종, 법연의 정토종, 찬란에 의해 확립된 정토진종 도원에의한 선종 일련에의한 일련종등이 독창적으로 발전해 왔다.

일본에서는 종파가 다르면 본존불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가람배치양식, 가사의 색깔과 모양 심지어는 독경의 음률까지 다르다고 한다. 그러므로 종파별 종학이 발달해 교의와 신앙, 수행방법, 그에 따른 성과도가 다른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이라 한다.

일본불교의 특징은 생활, 가정, 조상불교라 할 수 있으며 불자들은 부처의 가르침 보다도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집집마다 불단을 모시고 조석으로 조상을 공경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전체가 불자(신도51.29%, 불교 48.2%, 기독교0.6%)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은 동네사찰마다 조상대대의 유골이 안치돼 있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례문화는 무섭거나 어둡지 않고 밝고 아름답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찰에서 장례식, 49재, 1년, 3년, 7년, 13년, 17년, 25년, 27년, 33년, 37년, 50년 단위로 천도재를 지낸다고 한다.

현재의 종파는 19종 180파로 나뉘어져 있으며 19종은 법상종, 화엄종, 율종, 천태종, 진언종, 융통염불종, 정토종, 정토진종, 임제종, 조동종, 일련종, 시종, 황벽종, 화종, 성관음종, 아함종, 변천종, 창가학회, 입정교성회 등이며 이중 전국에 4천개이상의 말사를 가지고 있는 종파는 천태, 진언, 일련, 임제, 정토진종, 등이며 이들종파는 제각기 사회복지와 교육, 해외불교 포교등에 나서있다.

그 중 필자가 부러워하는 것은 불교학에 대한 연구열의와 그 성과인데 불교 교단에서 세운 우리나라 동국대 같은 종합대학이 54개나 되며 불교 전문학자가 3000명과 사찰이 10만개 스님이 20만 명이나 되며 스님들은 매일 신도집에 방문하여 독경을 해 준다하니 타 종교들이 받을 디디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

종교

한방각비 전문점 고향숯불각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제6기 불교기초교리생 모집

개강일 : 10월 6일 수요일 / 인원 : 30명 내외

오후 7시 강사 : 전문법사

기간 : 14주(50,000원)



중생의 본질

보현진열 / 감로향사 분향주

중생이 사는 세계를 욕계-색계-무색계라는 삼계다. 우주의 아래에 욕계가 있고 중간에 색계가 있으며 위에 무색계가 있다. 탐욕의 농도가 짙고 무거우면 아래로 처지고 가벼울수록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서 마치 큰 범종 같이 생겼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삼계라면 그 세계도 우리 몸의 구조요 생활의 모습이다. 몸=생활=세계다. 우리의 앓은 몸의 구조가 그와 같으니 생활도 그런 삼층 구조요, 것처럼 세계도 그렇다는 것이다.

보통 몸을 정신과 육체의 두 가지로 나누지만, 여기에 탐욕이란 한 영역을 설정해 놓았다. 이걸 인도 불교의 독특한 발상인데, 탐욕-육체-정신이라는 중층 구조이며, 탐욕에 의해 육체-정신은 작용한다.

탐욕에 의해 중생계는 존재한다. 중생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탐욕이 없으면 중생은 이제 중생이 아니요 거룩한 성현이거나 죽은 자다.

불교는 중생의 삶을 떠나도록 권유한다. 중생은 고통이 있는 곳이고, 고통을 떠나려면 탐욕을 떠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탐욕을 떠나면 곧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성현이거나 사자이리라. 이를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 한, 중생계엔 언제나 탐욕과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탐욕으로 살아간다. 그 탐욕의 발로를 사회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일 것이다. 자본주의란 중생계의 모든 가치나 핵심은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요 그 획득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는 논리다.

그런데 적은 자본은 많은 자본에 마침내 예속적이다. 빈부격차는 이래서 일어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가진 자본일수록 제도적으로 합법성을 가지면서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고 적은 자본들을 빨아들인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나 '신자유주의'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전략은 세계를 한 줄로 줄서 기시키면서 세계 자본들을 빨아들이는 자본 제국주의에 우뚝 서고 있다. 여기서 경쟁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은 모두 넘어지고 만다. 비정한 제도 개편이다. 사람 얼굴 없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와 연합하면서 개인이나 가정은 지금 요동치고 있다. 파산이 늘고 죽어 가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

탐욕의 극대화가 제도적으로나 통념상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빈부 갈등 구조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사회 경제나 신분 질서의 구조가 전혀 다른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탐욕의 발산과 극대화에 의한 새로운 질서 개편이란 약자를 희생시켜 강자만이 사는 정글의 법칙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약육강식, 이것이 중생계의 기본 생존의 전략일까?

불교는 말한다, - 탐욕의 인생은 마침내 그 탐욕으로 망한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삶의 미덕을 내팽개치고, 개인의 분방한 이익 추구에 나라와 세계는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너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하고 있는 사회 경제 환경이다. 아무튼 재편되는 사회 질서지만, 거기에 고통이 많이 따른다는 비극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아마도 저 자본 제국주의가 망하기 전까지는 하고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모든 제국주의는 망했다'는 전제가 사실이라면 그 날도 멀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애써 미소를 지어본다.

권혁찬

이진창 내과

원장/내과전문의 이진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075(기업은행2F)
Tel.031-237-3339 Fax.031-222-5228

경전강좌(달마사행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불전강좌(달마사행론) 강사: 원광스님
기간: 3개월 (80,000원)

불교의식반(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월 6일 개강)
강사: 권혁찬
기간: 3개월 과정 (6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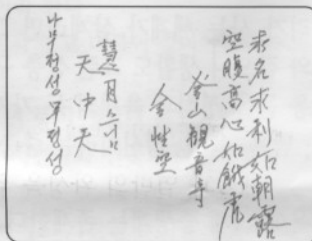


화엄의 세계

집을 지을 때 집을 받치는 네기둥이 있듯이 불법을 익혀 나가는데도 화엄경의 사주가 있습니다. 화엄경의 네 기둥은 신(信)·해(解)·행(行)·증(證)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마치 집의 네 기둥 중 하나가 빠진 것과 같아서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불자들은 신·해·행·증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흔히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법을 믿어야 합니다. 유교의 오행 금목수화도와 오상 인의예지신의 맥락을 짚어 가다 보면 신(信)이 토(土)에 해당됩니다. 즉 믿음은 흙사 땅덩어리와 같다는 말이지요. 땅이 바탕이 되어 산천이 뿌리내리듯 흙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믿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듯이 믿는 데만 그치지 말고 믿음을 바탕으로 배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대전제로 알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절에 다니고 책을 백권 읽어도 실천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논을 갈고 씨앗을 심어야 하듯이 아무리 불법을 믿고 배워 알아도 실천이 없으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물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증한다는 것은 앞의 세가지가 성숙하면 저절로 이루어 집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신·해·행·증 어느 것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거나 빠뜨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성공스님



불자라면 견성성불을 이야기 합니다. 마음 깨쳐 부처 된다는 말인데 그 말에 색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한쪽에만 치우치면 큰 공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귀의불양족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부족한 부처님이라는 말인데 그 두가지란 공부하는 것과 복 짓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해서 견성성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어야 합니다. 지악작선, 즉 악을 짓지 말고 선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선행을 닦고 복을 지어야 자동차 수레바퀴처럼 공부와 복을 짓는 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견성성불만 하고 중생제도가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루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중생제도부터 시작하셨잖습니까. 또 불경에도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이 있듯이 중생제도가 궁극적인 공부인 것이며 그것이 대승입니다. 복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보시가 있습니다. 보시는 외시, 내시, 법시가 있는데 외시는 물질적 측면의 보시를 말하며 내시는 몸뚱아리 보시, 즉 요즘 한창 생명을 나누는 운동이라고 하는 장기기증이나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준 이야기 등에서 알수 있는 것이죠. 법보시는 법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 위에 부처님을 받들어 이고 다니는 것보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법문을 하다보면 사람마다 장소마다 다른 법문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참선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참선하라고 가르치고 경 읽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경 읽으라고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할 사람은 기도하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면 성취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에 가면 선한 생각이 나고 공부할 생각도 나지만 집에 돌아가면 집 걱정이 앞서니까 공부할 때는 장소가 필요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무 때나 앉고 서면된다고 하지만 어느정도까지는 공부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조용한 장소에 가서 공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이 조용한 장소만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 중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공부의 근량이 무거워지고 세속에 멀어지게 됩니다. 즉 불법이 차츰 성숙해지고 세속법은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님들도 처음에는 산중에 있으면 공부가 되다가 세속에 오면 공부가 안되다가 산중에서 공부가 깊어지면 덜 익었던 것이 익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덜 익었던 것은 점점 익어지고 세속에 익숙해 있던 것이 차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자들은 이처럼 일상을 살면서 점점 불법을 익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악을 막고 중선을 봉행하라. 자정기의 하면 시제 불법이라"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이전의 철불이 공통적으로 설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악을 저지르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봉행 하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아침 햇살 속에 문을 열면 먼지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그만큼 요동을 하는데 그것을 고요히 한다는 것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다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세생생 보고 듣고 익혀놓은 것이 먼지 놀 듯이 떠도니 그것을 비워내기 위해 참선도 하고 경도 읽는 정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경이 높고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달마 이입사행론(2)



원광스님/본원 경전강좌 강사

불교의 기본 목적은 해탈과 열반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수행이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행의 방법은 다양하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한 선(禪)의 수행 방법은 불교의 여러 수행법 중에서 핵심적이고 효과가 빠른 방법이다. 이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이입사행론』이다.

해탈과 열반의 완성을 위하여, 즉 성불의 도(道)에 들어 가려면 먼저 근본종지(根本宗旨)를 깨달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 것을 이입이라 하고 그 실천방법은 벽관법(壁觀法)이다. 다음으로는 네가지 실천법(四行)이다. 첫째는 보원행(報怨行)이다. 불교를 믿고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은 무엇 보다도 인과응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인과응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불교를 믿는 생활은 효과가 없다. 어떤 인식이 필요한가? 자신의 생활에서 생겨나는 일, 특히 고통과 실패가 생기는 일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도피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나쁜 결과를 달게 받아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에 원망하는 생각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과 실패로 생기는 좌절감을 극복 할 수 없고, 따라서 재기의 노력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것이 달마대사가 가르친 보원행이라는 수행법이다. 이 보원행은 인과에 대한 관법(觀法)을 닦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수연행(隨緣行)이다. 불교신자가 해탈과 열반을 완성하려면 깨달음이 필요하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연기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세상만사는 모두가 연기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진 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연기의 원리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는 모두가 변하는 성질(무상 함)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연기의 원리 속에는 불변의 실체는 없으며, 모든 현상과 존재는 단지 상호의 조건에 의하여 변화의 모습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절실하게 깨닫고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존재에 대하여 착각이나 애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연기의, 즉 무상의 진리를 절실히 깨우친 사람은 생활 상에서 비록 행복과 성공의 결과가 있더라도 자만하거나 애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과 성공의 결과가 변화의 원리(연기의 원리)에 따라 사라져 갈 때 실망과 고통을 이기기 어렵다. 따라서 해탈과 열반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

앞에서 말한 보원행은 고통과 실패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수행이요, 여기서 말한 수연행은 행복과 성공이 있을 때 마음의 동요와 오염을 예방하는 수행법이다. 인간의 심리는 고통과 실패를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행복과 성공에 대한 자만과 동요로 인한 마음의 오염을 막아 내기는 그리 쉽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수행자는 이 수연행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것은 불교의 무상관(無常觀) 법을 닦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기 불교**

파스타 하우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1-5
중동BD 2F T.031-255-8843

세무사

전 종 환

TEL. 031)246-1177
FAX. 031)257-5533

옛날 낙수리

<낙지한마리 수제비>

낙수리해물탕 · 아구탕 · 낙지전골 · 해물파전 · 낙지찜

대표 주 희 연

체인점 문의 및 예약 244-8206 / 247-8716

인취사와 백련축제

은하심 최귀미 / 본원 사찰답사반원

10년만의 더위라는 뜨겁던 여름도 살짝 고개숙인 8.15 광복절, 백련향기 그윽한 인취사에 도착하니 낮으막한 산자락에 예쁜 암자가 보인곳에 흥, 백련이 어우러져 복합의미를 자랑하고 있었다. 4세기 고려시대때 건축된사찰로 극락전에 주불아미타불, 좌보처에 관세음, 우보처에 지장보살을 모셨는데 세종12년에 조성한 강진 무위사도 같은 형식으로 조성돼 조선시대 극락전 모습의 사원이라 한다.

법당의 부처님을 닮은 주지스님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맑게 해 주는 연꽃을 키우며 자연과 인간이 다르지 않고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시며 생활하신다..

양쪽 1000여 평 호수에 흥, 황, 백련, 옥잠화, 비비추, 물매화, 물양귀비, 오색빛수련, 어리연, 밤에피는 연 등이 정답게 웃고있었다.

연꽃 피는 곳은 생태계가 살아나고, 환경사랑과 해마다 만개한 8월 중순께 백련시사(白蓮詩社)를 열어 지인들과 연꽃의 아름다움을 시, 서, 화로 찬미하고 있다.

지금도 나라의 주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나라의 조상인 단군상을 철거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국민성, 여지껏 일본시간을 쓰고 있는 한심한 나라였었던 설움 잊지 말고 통일대비 허례허식을 버려 돈을 모아야 하신다는 심오한 말씀에 나도 모르게 온몸이 움츠러져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ندا

오랜 시간 달려간 무안 백련대축제장, 우리나라의 대규모 백련 집단자생지인 회산(回山)(은 세상의 기운이 돌고 돌아서 다시 이곳에 모인다)백련지는 일제시대 우리조상들의 피, 땀으로 축조된 10만평 저수지로 농업용수 공급하던 곳이었다. 희귀연인 가시연의 집단 자생지로 50여종 수상식물 관찰데크가 조성돼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드넓은 연바다에 노젓는 보트길을 만들어 백련과 포옹도 가능하지만 서툰 사공들의 운전엔 연잎들에게 부딪힐 때마다 연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인간의 욕심을 한발 버려야겠다고 느꼈다.

조용한 연밭에 수 많은 발자국
빨, 주, 노, 초 휘황한 조명등
터지는 군중의 박수소리
연꽃잎들이 놀라지 마
너희들의 짧은생을 아쉬워 하는거야

귀한여행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백귀**



8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 (3,349,120원)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조권형 홍인숙 권승하 김의순 권중서 구광국 김말수 주영월 한경숙 이태갑 진기홍
양재홍 윤광숙 최명길 김영희 양준영 정무근 현병국 이옥자 최정자 이난호 송호윤 민춘홍
주인수 최숙련 김미월 이대곤 강영진 이상범 박청용 김준옥 장옥훈 박선현 윤영예 조명숙
윤기수 박경아 이기순 진철희 진주범 강재수 이기원 안영찬 김대성 김은주 김용필
서순덕 장용집 이선우 김순자 윤영무 김기현 이임성 이영옥 김영동 이태순 진상범

KTF 신영통 전속대리점

011, 017번호 그대로 가입하세요

031-255-5800

대표 안창호

Phone A/S대행 신규가입,
요금수납, 기기변경
명의변경, 보상판매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규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경기불교 소식

● 8월 사찰환경답사

8월 사찰환경답사는 15일(일) 연꽃대축제란 주제를 갖고 아산의 인취사와 전남 무안의 회산 백련대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청초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연꽃 자생지를 직접 보고 느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속에 감춰진 불심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 8월 백중 영가천도재 원만회향

지난 30일 (음7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본 원에서 백중 영가천도재가 열렸습니다.
본원 불교의식 강사이신 권혁찬 선생님의 도반들과 함께 천도재를 바라춤, 나비춤 등 대채로운 춤과 행사로 영가님들을 극락으로 천도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참가하신 불자님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9월 행사 안내

9월 18일 ~ 19일에 실시되는 사찰환경답사의 중점은 대원사에서 산사음악회 관람과 대원사의 주말 수련회 프로그램인 '죽음을 준비합시다'의 과제를 가지고 관정기도(바르도 체험), 다도체험(연꽃이야기), 대원사 야경 감상법, 유언장 작성후 잠과 꿈의 명상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교 관련 행사 소개

● 팔재계 실천대법회

대한불교 조계종포교사단에서는 2548년 10월 9일~10일까지 해인사 보경당에서 법전 종정예하를 모시고 팔재계 실천 대법회를 개최하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사전접수기한 : 9월 20일까지
☎02)737-7588 , 031)251-1083

● 대만 성지순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에서는 11월 18일~21일 (3박 4일)대만불교성지순례에 나선다 동참자는 10월 11일까지 접수마감이며 동참금은 69만원이다. ☎02)737-7588 , 031)251-1083
대만 고궁박물관→용산사→태로각협곡→불광사→자재공덕회→자황사→야류해양공원

● 인도 8대 성지 걸망순례

경기불교문화원(원장/ 진철희)에서 부처님의 8대 성지를 걸망으로 순례한다 일정은 2004년 12월 23일 ~ 2005년 1월12일(20박 21일)이며 동참금은 198만원(예정)이다 접수마감은 10월 31까지이며, 선착순 20명이다.
연락처 간사 이육재 ☎031)251-1083

“9월 사찰환경 답사”, “백인에게 듣는다” 안내는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 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초교리	전문법사	3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0월 6일 개강
	경전강좌	원광스님	30명	12주 80,000원	달마사행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 화 강 좌	요가반	장순이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목요일 오전 11시	수시
		문명순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전호흡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우리춤 배우기	이순자	20명	5개월 100,000원	기본무, 살풀이, 한국무용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11월개강
	다도반	윤영예	20명	5개월 100,000원	생활차예절법 다경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0월 5일 개강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10월 6일 개강
			20명	12주 300,000원	명리전문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10월 6일 개강
	중국어회화	최경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중국어회화	매주 월/수요일 오후 4시 30분	초, 중등생 / 수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영어 회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부반 / 수시
	경락반	고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토요일 오후 3시	9월 11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1일 : 30,000원 2일 : 60,000원	사찰 환경답사	9월은 셋째주 토요일	수시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 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 031-251-1083/ 257-1083 FAX. 031-251-1779